

## 린지의 동물신학 탐구와 비평적 대화 모색\*

몰트만, 마우, 스택하우스를 중심으로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동물신학의 한 모색: 린지를 중심으로

1. 동물에 대한 전향적 자세와 신학적 윤리적 기반
2. 기독교 전통 사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방향성 탐색

### III. 린지의 동물신학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응답

1. 린지의 '동물에 대한 위(胃)중심주의적 관점과 접근에 대한 도전'에 관한 몰트만의 생태계에 책임적 신학과 윤리로부터의 응답 모색
2. 린지의 '인간중심적 창조론과 구원론을 넘어서는 다중성의 강조'에 대한 마우의 신칼뱅주의적 창조와 구원 이해로부터의 응답 모색
3. 린지의 '하나님 형상에 대한 전향적 해석과 동물을 포함한 만물에서 배우는 영적 무위(無爲)의 제안'에 대한 스택하우스의 하나님 형상 이해로부터의 응답 모색

### IV. 맺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5.02>

\* 이 논문은 2023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 ABSTRACT •

---

Linzey's Animal Theology and Critical Dialogue:  
Focusing on Moltmann, Mouw, and Stackhouse

Associate Prof. Lee, Chang-Ho (Presbyterian Univ.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ecological perspective is fundamentally critical of anthropocentrism. It is a refusal to view other beings in the living world as objects of human control or resources for human ends. Instead, it emphasizes the idea that all beings of an ecosystem are necessary and equally valuable. Humans are one of many animals, not more important or relatively superior. There are various species of animal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ll species is not a hierarchy but a horizontal one. Even empirically, animals are companions to humans in our society. They should not be treated as a means to satisfy human needs but as equal objects of love, such as family members, friends, and companions. Considering this reality, Christian theology should reflect on animals' ontological value or relational meaning and provide a rationale for justification. A typical example of such theological work is Andrew Linzey's animal theology. Linzey emphasizes that animals are the result of the same God who created humans. So they should be treated as creatures equal to humans and partners who should build a living community of harmony and coexistence with human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deepening the discourse of animal theology and ethics. To this end, I would like to state Linzey's animal theology and ethics and develop a critical dialogue with three theologians. Jürgen Moltmann, Richard J. Mouw, and Max L. Stackhouse are involved in the conversation with Linzey. I would like to conclude this paper by making some sugges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maturation of the discourse of animal theology and ethics.

**Key words:** Animal theology, Animal ethics, Andrew Linzey, Jürgen Moltmann, Richard J. Mouw, Max L. Stackhouse

---

## I. 들어가는 말

생태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나 인간우월주의에 비판적이다. 생명세계의 다른 존재들을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보거나 인간의 목적 구현을 위한 도구나 자원으로 보는 것에 대한 거부인 것이다. 오히려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들은 모두 필요하고 또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중시한다. 인간은 수많은 생물종들 중 하나이지 더 중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종의 동물이 있는데, 모든 종들 사이의 관계는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고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동물은 인간의 반려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함께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동물들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사랑의 대상 곧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인생의 반려자로 여기고 사랑하며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독교 신학은 동물의 존재론적 가치나 관계론적 의미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또 정당화의 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이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주목할 만한 결과들도 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기가 린지(Andrew Linzey)의 동물신학이다. 린지는 동물은 인간을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에, 인간과 동등한 피조물로서 또 인간과 더불어 조화와 공존의 생명공동체를 일구어가야 할 동반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린지의 동물신학과 그것에 대한 비평적 대화를 모색하고 동물신학과 윤리 담론의 심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린지의 동물신학과 윤리를 진술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가 주장하는 핵심 논점들 곧 동물에 대한 위(胃)중심주의적 관점과 접근에 대한 도전, 인간중심적 창조론과 구원론을 넘어서는 다중성의 강조, 하나님 형상에

대한 전향적 해석과 동물을 포함한 만물에서 배우는 영적 무위(無爲)의 제안 등의 논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점들에 상응하여 린지와 그의 비평적인 대화를 모색할 것인데, 이 대화에 참여할 신학자들은 몰트만(Jürgen Moltmann), 마우(Richard J. Mouw) 그리고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이다. 몰트만은 린지의 위(胃)중심성 비판과 같은 미시적 접근을 거시적인 신학적 관점 곧 삼위일체적 초월과 내재의 긴장, 그리스도론의 우주적 확장, 인간중심적 인간론의 극복 등의 관점을 통해 확장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우는 창조와 구원의 다수성(혹은 다중성)에 대한 이론을 발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린지의 창조의 다중성 논지를 소명론적 차원에서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스택하우스는 문화명령과 연계하여 ‘하나님 형상’론을 전개하되 생태계의 전체성과 관계성을 초점으로 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는 린지의 하나님 형상에 대한 영적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밝힌 린지의 핵심 논점들을 초점으로 한 비평적 대화를 위해 적합하고 유효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동물 신학과 윤리 담론의 성숙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 II. 동물신학의 한 모색: 린지를 중심으로

### 1. 동물에 대한 전향적 자세와 신학적 윤리적 기반

#### 1) 동료 생명들에 대한 경축

린지는 동물을 포함하여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반응 혹은 자세로서 ‘경탄’을 강조하는데,<sup>1)</sup>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데

1) Andrew Linzey, *Creatures of the Same God: Explorations in Animal Theology*, 장운재 역,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대전: 대장간, 2014), 50.

에는 세계신앙인의회(World Congress of Faiths) 창립자인 영허즈번드(Francis Younghusband) 경(卿)에게 받은 영향이 중요하다. ‘이 세계의 불타오르는 심장과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영허즈번드의 강조는 린지의 ‘경탄’론의 본질적인 근거가 된다. 린지의 인용이다. “모든 창조세계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 타오르는 것은, 마치 태양의 영광이 촛불의 밝은 빛 이상인 것처럼, 단순한 선물을 훨씬 넘어서 기쁨이다. 강력한 힘이 그리고 기쁨을 주는 힘이 세계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나의 모든 것 주위에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것 주위에서 작용하고 있다.”<sup>2)</sup> 영허즈번드에 동의하며 인간과 함께 이 지구를 나누어 쓰는 다른 존재들을 경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경탄할 가치가 있다고 해도 얼마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경탄의 여지를 허용하거나 찾으려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피조물을 확대하고 인간의 사육을 채우기 위해 도구화하기에 바쁜 인간이 무슨 경탄을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반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린지는 지적한다. 한편, 그는 경탄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다른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비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하지만, 우리의 이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경축하는 능력, 즉 우리 주위에 있는 불가사의한 피조물들에 경탄하고, 경외심을 갖고, 혹은 감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마도 우리는 동물을 단지 여기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물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동물을 자신의 타고난 권리 때문에 가치를 가진 한 주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sup>

2) The Beginning, the History of the World Congress by Marcus Braybrooke, <[www.worldfaith.org/Beginning.htm](http://www.worldfaith.org/Beginning.htm)>.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50에서 재인용.

3) 린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51.

경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영허즈번드의 개념으로 “모든 살아 있는 것들 안에서 작용하는 강력하고 기쁨을 주는 힘”이 갖는 의미를 알아차리고 또 인정·수용하는 것이라고 린지는 강조한다. 만일 이 선결과제를 풀지 못한다면, 경탄은커녕 ‘계속해서 심술궂고 비좁고 이기적이며 본질적으로 착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린지의 생각에 주목해 보자. “핵심은 경축이 우리 밖에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모든 가치의 총합이 아니다. 우리 밖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sup>4)</sup>

## 2) 생명에 대한 경외

경외는 경탄이나 경축 혹은 존중 등의 개념보다는 좀 더 고상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슈바이처가 경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일체一體에 대해 주장된 어떤 신비적 혹은 종교적 함의’를 내포했다고 린지는 지적한다.<sup>5)</sup> 종교적 함의를 내포한다는 것 그리고 경외의 경험을 전제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야 할 어떤 대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경외를 불러일으킬 만한 큰 존재나 힘이 이 세계와 그 안의 생명들을 있게 하고 또 존재케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sup>6)</sup> 그 존재와 힘 앞에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공동의 기원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존재들이 향유하는 생명이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바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 특히 동물들도 우리와 더불어 존재의 기원

4) Andrew Linzey and Dan Chon-Sherbok, *After Noah: Animals and the Liberator of Theology* (London: Mowbray, now Continuum, 1997), 12.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51에서 재인용.

5)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51-52.

6) 위의 책, 52.

을 공유하며 ‘공동의 선물’을 부여받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동료 생명 혹은 동료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린지의 주장이다.<sup>7)</sup> 이런 맥락에서 린지는 동료 인간들을 향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 대해 겸손할 것을 권고한다. 성서의 확고한 증언임을 확인하면서, 린지는 인간은 “다스리는 종種’이 아니라 ‘섬기는 종種’이라는 것 [...] 즉 땅과 땅 위에 모든 것들을 돌보라고 명령 받은 유일한 종”임을 역설한다.<sup>8)</sup>

### 3) 생명에 대한 연민

린지는 종교의 도덕성에 대해 강조한 제임스(William James)를 인용하는데, 후자에 따르면 종교는 윤리적 관점에서 인류에게 호응하는 공기와 같이 도덕적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본질적으로 담지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인간은 무한자의 부르심과 요구에 대해 응답하게 되기 때문이다.<sup>9)</sup> 동양적 개념으로 표현하여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종교적 신앙의 지지를 통해 더 왕성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린지는 강조한다. “확실히 연민은 인간의 마음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연민이 일어나려면 종교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타자를 인지하고,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며, 비록 우리가 자각하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종교적 비전이 우리가 다른 종을 다루는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지의 이유다.”<sup>10)</sup>

또한 린지는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수축(shrinkage)’이라는

7) 위의 책.

8) 위의 책, 52-53.

9) William James, “The Philosopher and the Moral Life,” in: *The Will to Believe, and Other Essays in Popular Philosophy* (New York: Dover, 1956), 211.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53에서 재인용.

10)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53.

신학적 개념을 중요하게 논한다. 에드워즈는 죄의 본질을 일종의 수축에서 찾고 있는 것이며,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강력한 수렴제와 같이 인간의 영혼을 자기이라는 아주 작은 단면으로 축소시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동료 피조물을 버리고, 자기 안으로 퇴각하여, 협소하고 이기적인 원칙과 느낌들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는지”에 대해 선명하게 논했던 것이다.<sup>11)</sup> 이 수축의 역동에 지배당하는 인간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인간과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을 위해 섭리하시며 그러한 섭리의 틀 안에서 동물은 오직 인간이라는 종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현실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와 삶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은 심각한 도덕적 영적 결핍(혹은 빈곤)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한다.

오히려 종교는 자기 자신에게로 매몰되거나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넘어 타자를 향해 확장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sup>12)</sup> 종교에게서 이 세계와 세계의 존재들이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희망은 무엇인가? 린지의 응답이다. “종교는 최상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어 우리 자신보다 더 멀리, 우리의 욕구보다 더 높게 보도록 돕는다. 종교는 우리가 피조물의 세계와 다시 연결되어 피조물을 경축하고 그들의 생명을 경외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을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11) Jonathan Edwards, *Charity and Its Fruit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69), 157-58.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53에서 재인용.

12) 린지는 동물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선사해 주셨다는 점을 밝힌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을 비롯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점 또한 빼놓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은 동물과 ‘동료로서의 감각’(a sense of fellow-feeling)을 갖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Andrew Linzey, “Animals as Grace: On Being as Animal Liturgist,” *The Way*, 46-1(2007), 140.

나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것이 종교가 가진 최소한의 희망이다.”<sup>13)</sup>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교와 종교적 신자들마저도 인본주의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 ‘인간의 단순한 욕구와 필요와 만족이 인간 외의 다른 모든 존재들이 추구해야 할 존재와 행위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린지의 진단이다. 심지어 종교지도자들도 동물을 경탄과 경외와 연민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재 이하의 존재로 대우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린지는 비판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피조물들을 경축하도록 돕기는커녕 종종 동물들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말한다. 마치 인간만이 중요한 종種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는 단지 인간 세계를 위한 단순한 극장 혹은 배경인 것처럼 말한다.”<sup>14)</sup>

## 2. 기독교 전통 사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방향성 탐색

### 1) ‘윤리적’ 관점: ‘위(胃)중심성’ 에 대한 도전

린지는 윤리적 차원에서 ‘위(胃)중심성’을 넘어서실 것을 도전한다.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The Problem of Pain*)에서 동물의 고통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룬 루이스(C. S. Lewis)와 같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역사

13)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54.

14) 위의 책, 54. 린지는 고통의 문제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에게도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역설은 이것이다. 많은 종교인들에게 동물이라는 이슈는 사소하고 아주 주변적인 이슈인 반면, 고통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덕적 문제의 하나라는 점이다. 모든 포유동물은 인간과 비교해 최소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두려움, 스트레스, 공포, 근심, 정신적 외상, 예상, 그리고 불길한 예감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 인간과 똑같이 느낀다는 풍부한 증거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인정받는 과학 잡지들에 잔뜩 실려 있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깨지기 쉬운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며, 이와 상응해 우리의 돌봄의 의무는 더욱 커질 것이다”(위의 책, 55).

를 통틀어 동물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논의에 무관심해왔다고 린지는 평가한다. 이렇듯 신학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 외의 피조물들을 가장자리에 위치시켜 논하는 일종의 ‘인간학’으로 축소되었다고 린지는 안타까워한다.<sup>15)</sup>

린지 자신의 극적 경험에 대한 증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강의를 들던 한 대학생이 던진 질문에서 동물에 대한 도구주의적 이해 곧 동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두드러지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학생의 질문은 동물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식용에 있지 않느냐이다. 이 질문의 전제는 물론 인간중심성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위궤 중심주의적인’ 신념이 기독교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린지는 주장한다. 동물의 존재론적 목적은 인간의 존재론적 ‘필요’와 일치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인데, 린지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 비판적이다.<sup>16)</sup>

린지는 동물의 존재 목적을 인간을 위한 식용으로 보는 이해는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님을 밝힌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결말 없이는 아무 것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즉 아무 목적 없이는 아무 것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연은 동물과 식물을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견지했다.<sup>17)</sup> 그의 생각은 신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신학적 정당화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퀴나스는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인 존재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성적인 종種’을 위해 존재하고 또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라고 가르쳤다고 린지는 전한다.<sup>18)</sup> 이런 맥락에서 1994년의 가톨릭 교리문답은 아퀴나스의

15) 위의 책, 63.

16) 위의 책.

17) Aristotle, *The Politics*, trans. T. A. Sinclair and rev. T. J. Saund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5), 79.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4에서 재인용.

생각을 계승하며 인간중심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덧붙인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인간에게 보내는 선물로 의도하셨으며 동물은 식물이나 무생물과 마찬가지로 그 본성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간의 공동선을 위해 예정되었다.”<sup>19)</sup>

린지는 기독교 전통의 주된 흐름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생각이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수백만 종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창조주께서 오직 그 중 한 종만 돌보신다는 것이 과연 자명한 사실인가? 지구라는 이 행성 위에서 이루어진 기나긴 생명의 진화 기간을 통해서 모든 종들이 인간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목적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그리고,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종들은 오직 인간의 허기진 위를 채우는 것 말고는 아무 기능이 없다는 말은 사실인가?”<sup>20)</sup>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인간의 식욕을 충족하는 목적에 봉사함으로써 존재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인식에 강하게 저항하며 린지는 동물은 생명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역설한다. 동물의 권리의 원천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동물의 권리의 원천이시기에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정확하게 창조자의 권리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1)</sup> 린지에 따르면, 신학적으로 볼 때 “권리

18)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in *Basic Writings of Saint Thomas*, trans. Anton C. Pegis (New York: Random House, 1945), 2:221.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4에서 재인용.

19)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London: Geoffrey Chapman, 1994), para 299, 71 and para 2415, 516.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4에서 재인용. 다만 가톨릭의 논자들 중에는 인간중심성을 넘어서서 동물을 구원론적으로 포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비근한 예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20)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4-65.

21) Andrew Linzey, “The Theological Basis of Animal Rights,” *The Christian Century*

는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나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얻거나 상실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인정되는(recognized) 어떤 것이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sup>22)</sup> 동물의 본래적 가치 그리고 그것과 연계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동물을 단순히 인간의 식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인식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평적 물음은 자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중심적 혹은 위(胃)중심적 이해는 성서적인가? 성서를 오직 위중심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가? 린지는 동물을 인간의 ‘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성서가 단정하고 있다는 식의 읽기와 해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인간이 동물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어떤 ‘도덕적 제약 없이’ 인간이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성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류와 소통을 말하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3)</sup>

하나님의 계약은 명백히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과 맺어졌다. 창세기 9:9-11 안식일의 평화는 모든 창조세계의 목표다. 창세기 2:1-3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공휴를 베푸신다.” 시편 145:9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가축에게 “잔인한” 사람이다. 잠언 12:10 육기는 심지어 인간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지고 리워야단 Leviathan과 베헤뭇Behemoth으로 비교한다. 욕기 40-41장 거의 모든 그리스

---

(October 9, 1991), 908.

22) 위의 논문, 908-909.

23)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5.

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다고 알고 있다. 창세기 1:28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채식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 창세기 1:29<sup>24)</sup>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성서가 동물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린지도 받아들인다. 성서의 증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혹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섭리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뢰더만(Gerd Lüdemann)을 인용하며 성서는 거룩한 책이지만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환기한다. 그럼에도 성서를 토대로 동물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기준을 모색하는 데 있어 성서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긍정적 내용들을 간과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듣고자 한다면, 아무런 윤리적 통제나 반성 없이 동물을 단순한 도구로 인식하고 남용·착취하는 데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 린지는 강조한다.<sup>25)</sup>

## 2) ‘신학적’ 관점: 창조와 섭리의 다중성의 강조

린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동물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할 것을 역설한다. 동물에 대한 참혹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보기로서 예수회 소속 릭카비(Joseph Rickaby)를 인용한다. “이해력이 없고 따라서 인격이 아닌 야만적인 짐승들은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나무의 줄기나 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등 동물들에게 자선이나 친절을 베풀 의무가 없다.”<sup>26)</sup> 린지는 이 인용에서 가톨릭교회의 동물에 대한 가치인식의 핵심적 부분을 탐색하는데, 그에 따르면 가톨릭교회

24) 위의 책, 65-66.

25) 위의 책, 66.

26) Joseph Rickaby, *Moral Philosophy* (London: Longman, 1901), “Ethics and Natural Law,” 2:199.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7에서 재인용.

는 신학적으로 동물을 인간에 견주어 열등한 가치의 존재이거나 아예 존재로서 그 어떤 가치도 부여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신학적 원천은 무엇인가?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동물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상응하여 하나님이 그러시기에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책임을 의무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신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린지의 응답이다. 아울러 린지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이고 논리적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수백만의 종의 - 수십억이 아니라면 -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중 오직 한 종만 돌보신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물론 하나님은 모든 종들을 동등하게 돌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는 각각의 복지에 전적으로 무관심한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겠는가?”<sup>27)</sup>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에 대해 책임적이신 분이라는 신학적 신념이 성서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동물을 포함하여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효용과 가치를 갖는지의 문제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타당하다. 특별히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가치 판단 곧 동물의 가치는 인간에 유익할 때에만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독교 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에 대해 기독교는 ‘공리주의적(功利主義的, utilitarian) 견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다.<sup>28)</sup> 거스타프슨(James M. Gustafson)과 같은 소수의 신학자들만이 이러한 공리주의적 대세에 거슬러 동물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목적 자체로 존중하며 창조론적 구원론적 논의를 전개해 왔다는 현실도 증언한다. 린지가 인용하는 거스타프슨의 문장이다. “목적은 인간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27)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7.

28) 위의 책, 68.

최고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sup>29)</sup>

린지는 기독교 신학이 견지해야 할 전향적 시각을 제안한다. 인간중심적 창조신학에 대한 도전으로서 창조와 섭리의 다중성에 대한 강조이다. 세계는 인간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뜻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들을 살리시고 붙드시며 그들에게 고유한 창조의 본성을 존중하시고 고양시키신다. 기독교이나 구원론과 같은 다른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러한 다중성과 연계하여 이해할 때 온전한 숙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린지의 생각이다. 구원론의 토대가 성육신이라고 볼 때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진실에 담긴 대표적인 함의와 현실은 육체에 대한 긍정이다. 다만 여기서 긍정은 남성의 육체에 대한 긍정만이 아니라 여성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인간 육체에 대한 긍정이며 인간의 육체에 대한 긍정만이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육체에 대한 긍정이라는 점을 린지는 역설한다. 그리하여 성육신은 ‘육체를 가진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연애 사건’이 된다.<sup>30)</sup> “우리는 성육신을 우주적 의미로 다시 볼뿐만 아니라, 구속 역시 진정으로 포용적인 것으로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간의 종말에 이르러 나와 다른 어떤 이질적 물질로부터 뿔뿔히 찢어질 영혼이 아니라, 모든 창조세계를 감싸는 구속의

29) James M. Gustafson, *Theology and Ethics* (London: Blackwell, 1981), 112.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8에서 재인용.

30)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9. 린지는 이러한 인식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는 익숙한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 하나의 멜로디’를 생산하는 로그스에 대한 고대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문장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옮긴다. “모든 곳에 그의 힘을 확장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밝게 비추면서, 그것들을 자기 안에 담고 에워싸으로써, 생명을 주면서 그리고 모든 것에, 모든 곳에, 각각의 개체에, 그리고 모두에게 함께 정교하고 단 하나의 듣기 좋은 하모니를 창조하면서”(Athanasius, *Contra Gentes and De Incarnatione*, ed. and trans. R. W. Thompson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1), 115.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9에서 재인용).

드라마의 일부다. 로고스는 모든 피조된 것들의 기원이자 운명이다. 그럼에도 신학은 아직도 이런 기독교의 기본적 신념을 자신의 창조교리에 비추어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성육신과 구속이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보다 더 작을 수 있단 말인가? 전적으로 인간만을 중시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기에 너무 작은 하나님이다.”<sup>31)</sup>

린지는 기독교 신학이 창조론적 다중성과 육체성의 긍정을 중대하게 내포하는 성육신 해석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로 우상숭배적 인간론 방지를 드는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자기 확대’ 혹은 ‘인간이라는 종種의 신격화’에 대한 포이어바흐(Ludwig Andreas von Feuerbach)의 경고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 “세계에 대한 진정으로 인간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숭배라는 유혹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신학이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인간에게만 사로잡힌 결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철저히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동물신학은 인간의 자아숭배라고 하는 우상숭배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신학적 비평을 수행하면서 린지는 마지막으로 동물을 비이성적 존재로 보는 아퀴나스적 인식의 틀을 극복할 것을 강한 어조로 권고한다. 극복이 요구되는 까닭은 아퀴나스 당대에 비해 오늘날의 인류는 동물에 대한 사실적 현상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린지가 제시하는 보기들로는, 포유류의 자의식 보유, 행동의 결과

31)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69-70.

32) 위의 책, 70.

를 예상하고 행동하는 초기 형태의 합리성과 수행 능력, ‘공포, 스트레스, 근심, 불길한 예감, 예상, 그리고 두려움’과 같은 지각 능력 보유 등이다. 동물이 자의식이나 고통 등을 감지하는 지각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sup>33)</sup> 이같은 재고의 필요성과 더불어 린지는 자신의 다른 저작에서 한 문장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유용하다. “동물 피조물이,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수 백 년, 수 천 년, 심지어 수백 만 년 동안 질병과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가 단지 ‘신성한 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영속시키길 원하는 일종의 사랑에 대해, 그러니까 추함으로 가득 찬 피조세계라는 존재를 상정해야만 성립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sup>34)</sup>

### 3) ‘영적’ 관점: 만물로부터 배우는 무위(無爲)의 영적 삶

린지는 ‘영적 도전들’에 대해서 논하는데, 요점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시 배우기’이다. 인간중심적 동물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물권 논의로 대표되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전향적 논의 등을 통해 동물 신학과 윤리 담론을 새롭게 전개해 가다가도 흐름의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신학적 명제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린지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 형상에 따른 인간 창조이다. 곧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신학적 개념이다. 하나님 형상 개념은 창세기 1장 26-28절의 문화명령 본문과 연계하여 인간의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해 왔음을 부

33) 위의 책, 70-71.

34) Andrew Linzey, “C. S. Lewis’s Theology of Animals,” *Anglican Theological Review* 80-1(1998), 71.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71-72에서 재인용.

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린지의 표현대로라면, ‘카드놀이의 으뜸 패’처럼 작용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으뜸패인지는 심도 있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린지의 생각이다. 지배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개념이고 본문이지만, 창세기 전체 맥락을 살피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전체로 읽는다면, 하나님 형상 개념과 더불어 지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화명령은 인간의 자의적 지배권 부여와 정당화가 아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와 계획을 받들면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닮아야 마땅하며, 그 닮음의 추구의 맥락에서 창조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sup>35)</sup>

‘하나님 형상’ 논지는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의 해석이나 창조신학적 논의의 맥락 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지평, 특별히 구원론적 기독교론적 논점까지 포함하여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고 린지는 주장한다. 지배라는 개념이 필연적으로 지배권을 수행하는 전제로서 ‘힘’을 상정한다면, 힘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기독교론적 접근을 통해 신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힘은 ‘카타바시스’*katabasis*, 즉 겸손과 희생적 사랑이며, 억압 받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고통 안에서 표현된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의미하는 것은 섬김이다.”<sup>36)</sup> 이렇게 볼 때,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힘의 논리와 역학으로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위계적 권력 수행도 아니고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 ‘무임승차권’도 아니다.<sup>37)</sup> 린지는 “섬김 없는 지

35)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72-73.

36) 위의 책, 73.

37) 린지는 자신의 다른 책에서 이 점에 대해 논한 바를 다시 서술하는데, 여기에 옮긴다. “창세기 1장에 대한 낱은 견해는 키스 워드Keith Ward의 의역 안에 표현되었다. 그는 ‘사람이 창조세계 안에서 ‘신’으로 만들어졌으며 피조물들은 ‘그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

배권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종은 봉사자(servant)됨이 본성적 특성이라고 역설한다.<sup>38)</sup> 특별히 약하고 힘없으며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들이 ‘더 큰 도덕적 우선권’을 받고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밝힌다.<sup>39)</sup> 이러한 인식의 근거는 신학적인데, 예수께서 그러한 존재들에게 더 크고 우선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섬기셨다는 점이 근거가 되기에 그렇다. 봉사자로서의 인간종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특별한가? 린지는 “다른 존재들을 위해 특별한 가치의 존재”가 될 때, 인간의 특별한 가치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응답한다.<sup>40)</sup>

린지는 동물신학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월하며 또 지배할 권을 받았다는 식의 위계적 권력적 이해로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 섬겨야 한다는 청지기적 이해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섬기는 종(種)’으로 스스로를 보는 이해로 전환할 때에야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성취하고 또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주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힘으로 타자를 수단화하고 노예화하는 인간은 주체로서 자유를 확보하고 확장해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

한다. 하지만, 새로운 견해는 이와 매우 다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힘과 창조세계에 대한 지배권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창조세계를 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가진 내적 논리는 더 높은 것이 더 낮은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겸손이 이렇게 값비싸고 중요한 것이라면, 왜 우리의 겸손이 그보다 못해야 하겠는가?”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London: SCM Press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71.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73에서 재인용.

38) 인간종의 봉사자됨에 대한 린지에 논의에 대해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길 바란다.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London: SCM Press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45-61.

39) Andrew Linzey, *Animal Gosp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39. 린지는 도덕적 우선권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다음의 문헌에서도 심도 있게 전개하였다. Andrew Linzey, *Animal Theology*, 28-44.

40) Andrew Linzey, *Animal Gospel*, 39.

그 힘의 사용에 상응하여 오히려 스스로를 노예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이 타자와 자아의 노예화에 대항하여 치열하게 싸워 나갈 때, “만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무위’無爲의 영적 규율을 실천할 수 있다.”는 린지의 생각을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sup>41)</sup> 이에 관한 그의 말을 좀 더 들여보자. “동물신학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통찰, 즉 동물은 하나님에 의해 소중히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 안에 어떤 본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통찰과 생각을 함께 한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이다. 이것은 항성 혹은 행성이든, 원자의 존재든, 혹은 인간 정신의 다른 어떤 양상이든, 인류 역사의 다른 어떤 중요한 발견들만큼이나 객관적이고 중요한 깨달음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 너무도 작은 것을 배우기 위해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지도 모른다.”<sup>42)</sup>

### III. 린지의 동물신학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응답

#### 1. 린지의 ‘동물에 대한 위(胃)중심주의적 관점과 접근에 대한 도전’에 관한 몰트만의 생태계에 책임적 신학과 윤리로부터의 응답 모색

##### 1) 몰트만의 생태신학과 창조윤리

몰트만은 생태계의 위기를 절감하며 기독교가 피조세계와 세계의 동료 존재들에 대한 책임적인 신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몰트만은 생태계에 책임적인 신학을 위해 우선적으로 숙고해야 할 몇 가지 신학적 논점을 제안·서술한다. 먼저 신적 초월과 내재에 관한 논점이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을 살필 때 ‘초월과 내재’ 논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

41) Andrew Linzey,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74.

42) 위의 책, 76.

적인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초월에 비중을 둘 경우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둘 사이의 관계를 위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내재에 비중을 둘 경우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겠지만 이 둘의 동일시나 일치를 신학적으로 정당화는 방향으로 기울 수도 있다. 몰트만은 초월과 내재의 균형을 견지한다. 다시 말해, 초월과 내재 중 하나를 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이 둘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존중하며 또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 논의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sup>43)</sup> 하나님은 피조세계로부터 초월하여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로부터 분리·단절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몰트만은 한편으로 초월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적절한 구분을 견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재를 존중하면서 깊은 사랑으로 세계의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다.<sup>44)</sup>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교통과 유비를 갖는다.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사귄과 세계 안의 존재들 사이의 사귄은 삼위의 상호침투를 통한 ‘코이노니아’ 형성에 상응한다. 곧 하나님과 세계는 함께 존재하고 서로를 위해 일하며, 세계 안에 존재들 가운데도 이러한 공존과 이타적 삶 그리고 사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sup>45)</sup>

다음으로 우주적 그리스도에 관한 논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조의 지평을 포괄한다. 무슨 의미인가?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영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몸이 구원의 대상이다. 인간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구원의 대상

43) Jürgen Moltmann, *Ethik der Hoffnung*, 곽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48-49.

44)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33.

45) Jü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250.

이 되는 것이다. 고대 기독교의 우주적 기독교론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세력에 대한 승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몰트만의 우주론적 논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는 세계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우주)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sup>46)</sup> 인간이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깊은 탄식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롬 8: 19-21). 하나님은 이러한 탄식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 하길 원하시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존중하여 그 의도 실현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몰트만은 강조한다.<sup>47)</sup> 그리하여 “우주적 그리스도론에 대한 신앙을 통해 인간은 자연에 대항하여 그와 투쟁하기 보다 자연과 화해하고, 또한 자연은 인간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 또한 덧붙인다.<sup>48)</sup>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인간론적 논점이다. 신적 초월과 내재의 균형 그리고 우주적 기독교론의 전개와 연관해서 인간론을 전개한다면 자연스럽게 인간중심적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방향이 될 것인데, 몰트만의 생태적 인간론은 바로 이 방향을 취한다. 생태계에 책임적인 신학의 틀 안에서 기독교 인간론은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인간 이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몰트만의 생각이다. 이러한 인간 이해의 빛으로부터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를 본다면, 분리나 위계가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관계에 방점을 두고 둘 사이의 관계성을 정립하게 될 것이며 둘 사이의 필연적 의존성을 인정하고 증진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sup>49)</sup>

46) 위의 책, 253; Jürgen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Christologie in messianischen Dimensionen*, 김균진·김명용 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88-100, 426-52.

47) Jü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253.

48) 위의 책.

인간중심성의 극복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시도는 생태윤리에 대한 논의에서도 탐구되는데, 몰트만의 생태윤리의 대표적인 보기들을 비평적으로 논하면서 탈인간중심적 기초를 확고히 한다. 환경윤리는 ‘인간중심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고 몰트만은 평가한다.<sup>50)</sup> 환경(Umwelt <움벨트>)이라는 개념을 어의를 따라 읽으면 중심과 둘레(주변)를 나누고 중심에 위치한 구성원과 그 구성원을 둘러싼 주변부의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세계상을 자연스럽게 그리게 된다. 중심은 당연히 인간이며 인간을 중심으로 둘레에(혹은 중심인 인간을 둘러싼 주변부에)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인간은 특별한데,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의미는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윤리에 견주어, 슈바이처로 대표되는 생명경의 윤리는 인간중심성을 극복하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몰트만의 생각이다. 다만 여전히 인간중심성이 남아 있다는 신중한 평가도 내린다. 슈바이처의 생명경의 윤리가 모든 생명이 ‘살려는 의지’를 보유하고 있기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점에서 인간중심성을 넘어서는 특성을 분명히 내포하지만 경외감을 느낄 수 있고 경외감을 주요 동기로 하여 생명세계의 위기를 치유할 주체로서 인간을 특수하게 다른 존재들로부터 구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sup>51)</sup> 그런가 하면, 동료세계 윤리는 중심과 주변의 개념을 뚜렷하게 내포하는 환경(Umwelt)이라는 용어 보다 ‘동료세계’(Mitwelt <미트벨트>)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료세계 안에서 모든 존재들은 동등하게 존재론적 가치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또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밝힌다. 동료세계 윤리는

49) 위의 책, 253-54.

50) 위의 책, 256-57.

51) 위의 책, 254-56.

인간중심성을 분명하게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견지한다고 몰트만은 풀이한다. 다만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인간관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인간이 아닌 세계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귄과 교류와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자연중심적’ 인간관을 추구한다고 몰트만은 평가한다.<sup>52)</sup>

생태윤리에 대한 비평적 논의 후에 몰트만은 자신의 대안으로 창조윤리를 제안한다. 자연 중심, 인간 중심, 생명 중심 등 ‘중심’을 분명하게 전제하는 접근보다는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접근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이시며 궁극적으로 세계의 중심이시라는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피조물들과 동료 존재로서 함께 살고 사랑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혹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규범적 방향으로 중시하는 세계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도구적 관점이나 위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스스로를 전체로서의 생명세계를 구성하는 단순한 한 부분 혹은 부속품으로 인식해서도 안 된다는 몰트만의 생각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sup>53)</sup>

## 2) 린지의 동물신학에 대한 응답

인간을 중심에 두고 창조의 다른 존재들을 주변부로 또 인간을 위한 도구의 지위로 내모는 신학은 확연하게 환원주의적이어서 신학을 인간학으로 축소시키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는 린지의 평가에 대해 몰트만은

52) 위의 책, 257-58.

53) 위의 책, 259;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Zur Gotteslehre*, 김균진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적 신론을 위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81.

일정 부분 동의할 것이다. 몰트만도 신학적 인간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인간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동물이라는 동료 피조물을 인간의 위(胃) 곧 식욕을 충족하는 도구로 제한하는 위중심적 이해에 강력히 도전하는 린지의 접근이 동물의 윤리적 지위와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구주의적 관점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보는 입장을 비평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관계성에 관심을 집중하는 미시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 거시적 맥락에서 동물과 인간 모두를 동등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동물과 인간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좀 더 유효한 접근이라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몰트만의 생태계에 책임적인 신학 추구에서 린지의 논지를 거시적 차원에서 확장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토대를 탐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신적 초월과 내재의 균형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로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을 포함하는 전체 세계 가운데 임재하시는 동시에 초월하심으로 피조세계와의 구분을 지키신다는 점,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는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에 유비를 가지며 더 나아가 세계 안의 존재들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점 등을 추론해 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 세계 안의 존재들인 인간과 동물은 삼위일체적 사귀를 관계적 이상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그 관계성을 일구어 가야 한다는 규범적 함의를 뚜렷하게 내포한다. 또한 몰트만의 '우주적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평을 우주적 혹은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오직 인간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는 전통적 구원론의 한 흐름을 넘어서 창조의 전체 영역과 신적 창조의 결과로서의 모든 피조물을 포괄하는 구원 이해를 뚜렷하게 제시한다. 우리가 본 대로, 인간 뿐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동료 인간들과 더불어 '영광의

자유'를 열망한다는 로마서 8장의 증언(21절)은 이러한 포괄적 우주적 구원론을 위한 핵심적인 성서적 기반이다.

## 2. 린지의 '인간중심적 창조론과 구원론을 넘어서는 다중성의 강조'에 대한 마우의 신칼뱅주의적 창조와 구원 이해로부터의 응답 모색

### 1) 다수성(다중성)에 초점을 둔 마우의 창조와 구원 이해

마우는 신칼뱅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들 중 한 사람인 카이퍼(Abraham Kuyper)의 칼뱅주의 신학과 강한 연속성을 가진다. 카이퍼의 영향을 스스로 밝히면서 마우는 칼뱅주의 신학의 요체에 대한 카이퍼의 이해를 옹기는데, 특별히 1898년 카이퍼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행한 스톤 강연(Stone Lectures)을 주목한다. 마우에 따르면, 카이퍼는 이 강연에서 칼뱅주의가 전통을 교조주의적으로 견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칼뱅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중시하면서도 현대의 도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또 적절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54)</sup> 마우는 카이퍼의 칼뱅주의 이해를 존중하면서 전통에 대한 혁신을 가로막는 보호주의적 저항을 경계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회문화적 변화에 창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우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위기이자 도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복음의 메시지를 현대인들이 유효하게 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sup>55)</sup> 여기서 마우의 낙관론을 탐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낙관적 인식에 대한 핵심적인

54)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강성호 역,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서울: SFC 출판부, 2015), 12-13.

55) Richard J. Mouw, "Thinking about 'Many-ness': Inspirations from Dutch Calvinism," 미간행 원고, 2015.

신학적 근거는 그의 일반은총론이다. 마우의 일반은총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의 ‘다수성’(many-ness, 혹은 다원성)이다. 하나님은 오직 개별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것에만 배타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섭리로 복수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구현해 가신다는 것이다.

마우는 하나님 창조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있어 인간중심성을 넘어서고자 하며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포괄하는 다원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창조의 결과에 대해 기뻐하시는데,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서도 기쁨을 찾으시고 또 누리신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성서적 근거로서 마우는 시편 104편을 제시한다. 이 시편은 이른바 창조시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담고 있는데, 마우는 창조의 결과들 중 하나인 인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하늘을 휘장 같이”(2절) 펼치시고 바람과 불 그리고 땅의 기초를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더욱 섬세한 묘사들이 이어지는데, ‘새,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 풀과 채소, 포도주, 기름, 양식, 각종 나무, 들나귀, 학, 산양, 너구리’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피조물들에 대한 묘사가 포함된다. 찬양의 절정에 이르러 두 가지 핵심적 고백이 올려 진다. 24절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와 31절의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이다. 마우는 이 시편은 창세기를 선명하게 연상시킨다는 점을 밝히면서, 인간이 창조의 무대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과 다른 피조의 현실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빛을 있게 하시고 “보기에 좋다.”고 선언하신다. 그러고 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동일하게 “보기에 좋다.”는 찬사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찬사

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다. 특별히 아직 인간은 등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많은 존재들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마우는 강조한다.<sup>56)</sup>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강과 산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양을 향한 위대한 찬양을 생각해 보라. 이 찬양에서 천상의 보좌와 수많은 증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한다(계 5:9-10). 사도 요한은 이 찬양과 함께 올려지는 다른 한 곡의 찬양을 소개하는데, 이 찬양의 주체는 ‘모든 피조물’이다. 그들의 찬양을 들어보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하나님은 인간 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실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여, 마우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와 세계의 존재들에 대해 다수의(혹은 다중적인) 목적과 관심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힌다.<sup>57)</sup>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위한 신적 계획과 역사에 있어 복수의 목적을 설정해 두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오직 인간만을 신적 창조와 구원의 계획과 역사 안에 두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포함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

56) 위의 논문.

57) 위의 논문.

원은 개별 영혼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의 전체 지평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마우의 근본적인 입장은 “하나님은 복합적인 목적(multiple divine purposes)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심에 있어,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도 분명 관심이 있으시지만, 더 나아가 그분의 계획은 더 넓은 창조세계에까지 미친다.”<sup>58)</sup>

## 2) 린지의 동물신학에 대한 응답

창조와 구원에 대한 신학적 논의의 지평을 인간중심성에서 다중적 초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린지와 마우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 창조와 섭리에 있어 하나님은 차별적이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에 대해 차이를 설정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다. 구원에 있어서도 린지와 마우 모두 인간중심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앞에서 본 대로, 린지는 ‘창조와 섭리의 다중성’을 강조하며 마우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광범위하면서 다원적인 관심사’에 주목한다.

다만 마우는 인간 뿐 아니라 동물도 창조와 구원의 신적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둔다는 점에서 동물신학에 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찬양대에는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피조물로서의 동물들이 중요하게 포함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계 5:13) 주체는 구원받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

58)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권혁민 역, 『문화와 일반 은총: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빛나신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80.

조하신 모든 존재 곧 강과 산과 바다를 비롯한 창조의 전체 영역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라는 점을 마우가 분명히 함을 보았다. 인간과 함께 동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원의 대상의 관점 뿐 아니라 구원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관점에서도 동물신학 논의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우가 제안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 3. 린지의 '하나님 형상에 대한 전향적 해석과 동물을 포함한 만물에서 배우는 영적 무위(無爲)의 제안'에 대한 스택하우스의 하나님 형상 이해로부터의 응답 모색

#### 1) 스택하우스의 문화명령과 하나님 형상 이해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창세기 1장 28-29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도덕적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의 결과 중 하나인 인간에게 고유하게(혹은 특수하게) 부여하신 책무이다. 피조세계와 다른 피조물들의 지배자가 아니라 전체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연의 잠재성'을 보존하고 증진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sup>59)</sup> “참으로 인종(人種)을 번성시키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러한 과학기술적 개입은 인류를 땅을 다스리는 주체적인 행위자(agent)임과 동시에 완수해야 할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행위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행위(agency)와 인간의 행위 사이의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인간의 창조성이 인간에게 이미 부여된 것 혹은 인간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 속에서 발생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 하나님은 무에서(*ex nihilo*)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59)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서울: 북코리아, 2013), 206-209.

서 볼 수 있다.”<sup>60)</sup>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자연의 잠재성을 보존하고 증진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상응하는 역량을 주신다면, 이 역량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 스택하우스는 이를 ‘하나님 형상’으로 풀어낸다.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제1차 환경으로서의 자연에 대해 인공적으로 개입하여 제2차 환경으로서의 문화(혹은 문명)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개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신 바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승인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신적 승인의 핵심적인 인간론적 근거는 인간에게 특수하게 주어진 바로서의 하나님 형상인 것이다. 스택하우스는 하나님 형상 개념을 기독교의 전통적 이해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sup>61)</sup> 첫째, 하나님 형상을 전통적으로 영혼과 동일시해 왔음을 밝힌다. 하나님 형상이 인간에 고유한 것이듯이, 영혼 역시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 짓게 하는 핵심적인 인간론적 요소라는 인식인 것이다. 둘째,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음과 연관된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며 세계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유비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셋째, 두 번째와 연관되는 것으로,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과의 사귄을 내포한다.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향과 역량인 것이다. 다만 하나님 형상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지만 하나님 형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님을 스택하우스는 분명히 한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부여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60) 위의 책, 209-10.

61) 위의 책, 213-15.

하나님 형상에 내포된 인간론적 역량은 무엇인가? 특별히 문화명령 수행과 자연과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어떤 잠재력을 포함하는가? 스택하우스는 크게 세 가지 역량을 제시한다.<sup>62)</sup> 첫째, 지적 역량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세계의 존재들을 관찰하고 숙고하여 존재론적으로도 현상적으로 이해·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의지적 역량이다. 스택하우스는 자연과 자연 안의 존재들이 갖는 본성적 특징들 중 하나로 의지적 ‘비결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와 견주어 인간은 의지적으로 ‘결정성’을 특성으로 한다. 인간이 결정함으로써 자연 안에 결정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셋째, 정서적인 역량이다. 자아가 아닌 타자나 외부 세계를 철저하게 대상화하여 정서적 관계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갖춘 존재로 살고 작용하게 하는 능력인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하신 문화명령과 하나님 형상 그리고 형상에 내포된 인간론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스택하우스는 창조세계 속에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인간이 견지해야 할 규범적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피조물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동료 피조물들과 상호의존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인간은 세계와 세계의 존재들과의 관계성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 혹은 인간우월주의를 근본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규범적 방향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인간의 세계 내적 의미도 전체 세계와의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본질적으로 고려하면서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 스택하우스의 생각이다.<sup>63)</sup>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존중되어야 하는 부여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62) 위의 책, 215-17.

63) 위의 책, 219.

포함하여 어떤 피조물도 자율적이지 않다. 더구나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역동적인 우주만물의 존재를 지배하는 법칙과 창조주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불변하는 것은 없다. 많은 사물과 많은 사람이 생겨나서는 사라졌으며 세계 자체도, 우리도 영원히 존속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 하셨고 지탱하신다. 자연은 자력으로는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다.”<sup>64)</sup> 둘째, 문화명령과 문화명령의 수행 역량을 내포하는 하나님 형상의 청지기적 특성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피조물들과의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의 인간의 책임 수행은 인간중심적 임의성을 벗어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우리가 ‘문화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적 수행과 하나님의 창조물의 경작으로서 우리의 다스림(dominion)을 완수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에 가능한 한 능해야 하는 것이 신학적인 의무다. 이러한 신념의 실제적인 함의는 우리가 ‘자연의 존재 법칙’(ontic laws of nature)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발견함에 있어 신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신념은 자연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배에 있어서 책임 있는 청지기적에 관해 그들 비신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sup>65)</sup>

## 2) 린지의 동물신학에 대한 응답

문화명령과 하나님 형상을 연계하여 논의한 점에서 린지와 스택하우스 사이의 연속성을 탐지한다. 문화명령 수행의 정당성과 행위 동력의 원천으로서 하나님 형상이 갖는 신학적 윤리적 의미에 주목하는 방법론적 특

64) 위의 책, 219-20.

65) 위의 책, 220-21.

성을 공유한다고 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보유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그 형상을 구현함으로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 두 학자에게서 공히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린지는 하나님 형상에 대한 기독교적 성육신적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을 구현하는 문화명령 수행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스택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을 존중하면서 닮음의 주지(主旨)와 함께 ‘사귄’의 의미를 제안함으로 하나님과 세계 그리고 세계 안의 존재들 사이의 교류와 상호작용과 공동체 형성을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신학적 윤리적 함의로 덧붙인다.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문화명령 수행의 역량으로 이해하고 지적, 의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상술한 점은 유익하다. 지적 역량을 발휘하여 세계와 세계 안의 존재들의 본성 중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부분과 변화나 재구성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분별하고 서술하는 책무를 수행한다. 의지적 역량을 발휘하여 인간의 결정이 세계와 동료 존재들에게 존재론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성을 생각할 때 의지의 결정성이라는 요소는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을 비롯한 다른 피조물들에게 늘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윤리적 방향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정서적 역량은 타자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핵심적으로 포함하는데, 인간이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들을 위한 섬김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행위의 동기와 동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명령, 하나님 형상, 인간의 잠재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론적으로 스택하우스가 제시하는 제안은 린지의 논의를 발전적으로 전개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형상을 전체성과 관계성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인간의 지위를 전체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또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생존을 위해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점으로부터 하나님 형상의 관점에서 동물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IV. 맺는 말

이상의 논의와 탐구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신학적 윤리적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들이 동물 신학과 윤리 담론의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동물 신학과 윤리를 전개함에 있어 인간과 동물을 포괄하는 신중심적 관점을 중시할 것을 제안한다. 동물의 존재론적 지위와 의미를 탐색할 때 인간과의 관계성을 초점으로 하여 목적과 수단, 지배와 피지배, 중심과 주변부 등 위계적 이분법적 틀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부분들 사이의 상호연관성 등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은 우주적 지평을 본질적으로 내포하며, 동물과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존재들은 전체로서의 우주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들로서 창조하신 세계(우주)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 이러한 신중심적 틀을 존중하며 동물 신학과 윤리를 모색하는 것은 인간 중심, 동물 중심, 식물 중심 등, 중심과 주변부로 세계의 존재들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관점과 구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조와 섭리의 틀 안에서의 동물의 신학적 의미의 심화에 관한 것이다. 시편 104편의 창조의 목록에는 인간이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마우는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창조신학을 탐지할 수 있다고 밝힘을 보았다. 그렇다고 창조의 중심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있음을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소중

하기에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그 모두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궁극적 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구원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뜻 실현을 위해 부르신다.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다(91절). 만물에는 인간 뿐 아니라 동물도 포함된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형상의 관계론적 해석의 강화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 형상은 ‘닮음’의 의미를 중요하게 내포하는데, 하나님을 본보기로 삼아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실현이 되는 것이다. 린지는 기독교적 해석에 방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형상 실현의 요체라고 강조함을 보았다. 기독교적 관점 뿐 아니라 삼위일체적 관점도 중요하다. 삼위일체적 관점을 존중하여 하나님 형상을 해석한다는 것의 중요한 함의 한 가지는 삼위일체의 본질을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귄에서 찾고 하나님 형상을 ‘사귄’을 현실화함을 통해 구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함의를 생태적으로 확장한다면, 하나님 형상을 구현함에 있어 동물과의 사귄을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하고 이 사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신학적 윤리적 함의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Linzey, Andrew. *Creatures of the Same God: Explorations in Animal Theology*. 장운재 역.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대전: 대장간, 2014.
- \_\_\_\_\_. “The Theological Basis of Animal Rights.” *The Christian Century* (October 9, 1991), 906-909.
- \_\_\_\_\_. *Animal Theology*. London: SCM Press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 \_\_\_\_\_. *Animal Gosp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 \_\_\_\_\_. “Animals as Grace: On Being as Animal Liturgist.” *The Way* 46-1 (2007), 137-49.
- Moltmann, Jürgen. *Trinität und Reich Gottes: Zur Gotteslehre*. 김군진 역. 『삼위 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적 신론을 위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_\_\_\_\_.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김군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_\_\_\_\_. *Ethik der Hoffnung*.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_\_\_\_\_. *Der Weg Jesu Christi: Christologie in messianischen Dimensionen*. 김군진 · 김명용 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Mouw, Richard J. *He Shines in All That's Fair*. 권혁민 역. 『문화와 일반 은총: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빛나신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_\_\_\_\_.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강성호 역.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SFC 출판부, 2015.
- \_\_\_\_\_. “Thinking about ‘Many-ness’: Inspirations from Dutch Calvinism.” 미간행 원고, 2015.
- Stackhouse, Max L.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서울: 북코리아, 2013.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

• 국 문 초 록 •

---

생태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나 인간우월주의에 비판적이다. 생명 세계의 다른 존재들을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보거나 인간의 목적 구현을 위한 도구나 자원으로 보는 것에 대한 거부인 것이다. 오히려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들은 모두 필요하고 또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중시한다. 인간은 수많은 동물들 중 하나이지 더 중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종의 동물이 있는데, 모든 종들 사이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고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동물은 인간의 반려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함께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동물들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사랑의 대상 곧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인생의 반려자로 여기고 사랑하며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독교 신학은 동물의 존재론적 가치나 관계론적 의미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또 정당화의 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이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주목할 만한 결과들도 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기가 린지(Andrew Linzey)의 동물신학이다. 린지는 동물은 인간을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에, 인간과 동등한 피조물로서 또 인간과 더불어 조화와 공존의 생명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할 동반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물 신학과 윤리 담론의 심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린지의 동물 신학과 윤리를 진술하고 세 신학자들과의 비평적 대화를 전개하고자 한다. 린지와 대화에 참여할 이들은 몰트만(Jürgen Moltmann), 마우(Richard J. Mouw) 그리고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이다. 동물 신학과 윤리 담론의 성숙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주제어:** 동물신학, 동물윤리, 앤드류 린지, 위르겐 몰트만, 리처드 마우, 맥스 스택하우스

---